보기 싫은 사람과도 함께 살아야…



新 불교사자성어

㊹ 원증회고(怨憎會苦)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크게 여덟 가지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증회고(怨憎會苦)'이다. '원증회고'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데서 오는 심적(心的)인 고통을 말한다.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될 것 같지만, 인간사회는 '독불장군'이라는 말과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부모, 형제, 가족, 선후배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존심이 상해도 배짱이 뒤틀려도 참아야 한다. 간혹 TV를 보면 인적 없는 산속이나 왼 딴 섬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역시 극심한 고독과 싸워야 한다. 고독에는 강자가 없다. 보기 싫지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괴로운 일이다.

그와는 정반대인 애별리고(愛別離苦)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별할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고통.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이다. 어쩌면 인간은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고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애증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왠지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조금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특정한 이유 없이 그냥 정서적일 때도 있고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일로 인간관계가 꼬여 버린 경우도 있다.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는 상대적이어서 자신의 탓도 적지 않다. 필자도 살다가 보니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내 잘못이 더 많았다. 문득문득 후회가 된다.

일본 도쿄에서 열차로 한 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가마쿠라(鎌倉)는 수국과 선종사찰로 유명한 곳이다. 6월이 되면 전국에서 몰려든 수국 인파로 길이 터진다. 그곳에 가람과 문화가 그림 같은 엔가쿠지(圓覺寺)가 있고 철길 건너 맞은편에 '도케이지(東慶寺)'라는 절이 있다. 13세기 말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권력자였던 호조 가문의 도키무네가 죽자 그 아내는 남편이 묻혀 있는 엔가쿠지 맞은편에 절을 창건해서 비구니로 여생을 마쳤다. 그 절이 비구니 절인 도케이지다.

도케이지(東慶寺)는 에도시대 남편들에게 학대받던 여성들의 유일한 해방구였다. 과거 일본은 남자들은 마음대로 이혼할 권리가 있었지만, 여성들은 그 어떤 이유로든 이혼할 권리가 없었다. 남자가 이혼해 주지 않으면 두들겨 맞으면서도 한평생 살아야 했다. 못된 남편들의 폭력, 욕설, 술주정, 학대 등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여성들은 시대를 원망했다.

그러나 그런 여성들에게도 다행히 한 가닥 해방구, 탈출구가 있었다.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면 '도케이지'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은 남자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신변 보호가 되었고 남편들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성들이 도망하여 그곳에서 3년만 지내면 이혼이 허락되었는데, 문제는 여성들이 어떻게 남편들의 추격에 붙잡히지 않고 도케이지 정문 문턱을 넘는가였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붙잡히면 도케이지 측도 손을 쓸 수 없었다. 여자는 도케이지 정문을 코앞에 두고 다시 남편의 손에 끌려가야 했다.

아마 에도시대에는 도케이지 정문 앞 계단은 도망가는 여자를 뒤쫓는 남편, 붙잡히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도망가는 여성들로 슬픈 광경을 이루었을 것이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붙잡혀서 남편에게 질질 끌려가는 광경은 차마 보기 힘든 인간사의 한 단막이기도 했다. 그래서 도케이지 측은 여자가 신발 한 짝 만이라도 벗어서 정문 안으로 던져 넣으면 일단 들어 온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래서 여성들은 급박해지면 신발 한 짝이라도 벗어들고 죽을힘을 다해 던졌다.

그렇다고 무조건 여성 편은 아니었다. 도케이지 측은 '연절사법(緣切寺法)'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이혼을 성립시킬 때는 남편도 불러서 진술을 받았다. 물론 초록색은 거의 같았다. 에도막부에서도 정식으로 연절사법(緣切寺法)을 인정했고, 도케이지는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이혼 재판소 같은 역할을 했다.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인간 세상의 미덕인데 악연을 끊어주는 곳이라고 하여 '연절사(緣切寺)'라는 별명이 붙었다.

도케이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녀인 센히메(千姬)가 만년에 남편 두 명과 사별 후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살았던 절로도 유명하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콧구멍도 말문도 막고 전신토기?

〈轉身吐氣〉



격절록 강설

㊹ 무업망상 2

[評唱 2]

又問 "如何是祖師密傳底心印" 祖云 "大德正開在 且去別時來" 師纔出 祖召大德 師回首. 祖云 "是什麼" 師便頓悟 乃禮拜. 祖云 "跋跟阿師 禮拜作什麼" 雲居錫云 "什麼處是汾州正開處" 後來答話 只云莫妄想 如此者二十年.

(무업이 마조에게)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은밀히 전한 심인(心印)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대덕이 정말로 시끄럽게 구는구나! 일단 갔다가 다른 때 오라."

국사가 막 나가려는데, 마조가 "대덕!" 하고 불렀다.

국사가 고개를 돌리자(回首), 마조가 말했다.

"이것이 무엇인가(是什麼)?"

국사가 바로 단박에 깨닫고는 절을 했다.

마조가 말했다.

"(남의) 발뒤꿈치나 쫓는 스님아! 절은 해서 뭐해."

(이이 대해) 운거 석(雲居錫)이 말했다.

"어디가 분주가 시끄럽게 군 곳인가?"

뒤에 (누군가 물으면) 답하기를 다만 "망상 떨지 말라(莫妄想)!"고 했으니, 이와 같이 하기를 20년이나 했다.

一日院主云 "和尚 休得也未" 他即云 "院主" 主應之 他云 "這回休得也未 直至死 亦只云 休得也未" 若道禪真箇有一句教人端的參 如問佛問祖只一般 答何故一百箇 答做一百般. 只這無業老漢也大漏逗.

하루는 원주가 말했다.

"화상께선 쉬지 않으십니까?"

국사가 말했다.

"원주!"

원주가 "예!"하고 대답했다.

국사가 말했다.

"이번에 쉬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러서도 단지 '쉬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것이다."

만약 선에 정말로 일구가 있다(禪真箇有一句)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참구하라고 한다면, 부처를 묻고 조사를 묻는 것은 단지 하나일 뿐인데 답은 어째서 일백 개나 되는 것인가? 백 가지로 답을 해서 그런 것인가? 다만 이 무업 노인이야말로 낭패(漏逗)가 클 뿐이다.

雪竇下一句語 極有作略. "如何是佛" 他云 "莫妄想" 雪竇云 "塞却鼻孔" "如何是佛" 云 "即心是佛" 雪竇云 "拄却舌頭" 正當恁麼時 舌頭又拄却 鼻孔又塞却 還有轉身吐氣處也無. 便打.

설두의 일구어(一句語)에는 대단한 계략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묻자, 무업이 "망상 떨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설두가 "콧구멍을 막아버렸다"고 하였던 것이다. 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묻자, 무업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고 한 것에 대해 설두가 "말문을 막아버렸다"고 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할 때 말문도 막아버리고 콧구멍 또한 막아버리고 전신토기(轉身吐氣)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선상을) 쳤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㊹ 이해의 길 24

대승 초기 공사상 유행 이유

우리나라 불자들은 〈니까야〉나 〈아함경〉과 같은 근본경전보다는 〈금강경〉이나 〈화엄경〉, 〈법화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더 좋아한다. 이러한 대승경전은 대승불교가 성립한 BC 1세기경부터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13세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유행하는 경전과 사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승 초기(BC1세기~AD3세기)에는 주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중심으로 공사상(空思想)이 유행하며, 중기(3세기~6세기 중엽)에는 불성(佛性)과 여래장(如來藏), 유식사상(唯識思想)이 유행한다. 이슬람의 침입으로 불교가 소멸되는 후기(6세기 중엽~13세기)에는 주로 밀교(密敎)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다면 대승 초기에 공사상이 유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 공사상이 부파불교의 실재론을 타파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붓다의 근본 가르침은 연기와 무아, 무상이 핵심이다. 그런데 부파불교에 이르러 붓다의 사상이 왜곡되기 시작한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처럼 부파의 이름에서 그 의도를 대놓고 드러내기도 한다. 글자 그대로 일체가 있다는 것을 설하는 부파라는 뜻이다. 그들은 나는 공하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5온(蘊)과 같은 법(法)은 있다(有)고 주장하였다. 이를 '아공법유(我空法有)'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붓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因緣生) 인연이 다하면 소멸하는(因緣滅) 다이내믹한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5온'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반야심경〉에서 '5온이 모두 공하다(五蘊皆空)'고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관자재보살은 공이라는 무기로 5온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度一切苦厄) 것이다.

둘째로는 공사상이 유행한 이유를 부파불교의 해탈론(解脫論)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단혹증리론(斷惑證理論)'이라 하는데, 글자 그대로 미혹,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친다는 뜻이다. 그들은 번뇌를 끊기 위해 이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10가지 근본번뇌(十惑)가 있고 이로부터 108번뇌와 같은 지말번뇌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그들은 근본적으로 번뇌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번뇌를 실체시하는 것이었다. 번뇌를 끊고 행복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번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공사상은 이런 입장에 날카로운 메스를 가한다. 그들이 번뇌를 실체시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번뇌 또한 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걷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꽝!' 부딪쳤다고 해보자. 순간 눈앞에서 별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런 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착각이고 망상일 뿐이다. 어찌 보면 별을 없애기 위해 있지도 않은 별의 실체를 연구하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술이 깨면 자연히 사라지는데 말이다. 이런 일이 우습고 바보 같이 보일지 몰라도 중생들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공사상은 붓다가 보여준 연기의 진리를 재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공은 부파불교의 실재론을 타파하는데 연기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다. 연기가 상대를 향해서 날리는 짧은 주먹이라면 공은 상대의 공격을 한 방에 무너트리는 강력한 카운터펀치라고 비유하면 어떨까싶다. 부파불교가 실재론이라는 한 방을 날렸는데, 대승에서는 이를 부정하면서 공이라는 펀치로 받아친 셈이다.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은 부파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에 집착한다고 보았다. 붓다의 가르침은 단순했다. 모든 것은 공하기 때문에 번뇌 또한 공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전하기 위해 대승 초기에 600부나 되는 방대한 경전군(群)인 〈반야경〉이 만들어졌다. 이 경전들은 공의 이치를 깨친 손오공(孫悟空)이 번뇌, 망상이라는 요괴를 만날 때마다 사용한 여의봉(如意棒)이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